

동서양 여성철학의 현장탐구

: 任允摯堂의 성리학과 버지니아 울프의 페미니즘*

- 세계화와 Eco-feminism을 중심으로 -

손흥철**

|| 차례 ||

1. 머리말
2. Orientalism과 문화교류의 正路
3. 자유주의 자연관에 대한 서구의 비판: 생태학과 생태여성주의
4. 생태철학으로서 性理學의 天人合一의 자연관
5. 새로운 환경윤리를 위하여
: 임윤지당의 성리학과 Virginia Woolf의 Feminism
6.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국문초록】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원리로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여 도덕적 善惡을 판단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성리학의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주의(Ecology)와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서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을 합한 개념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을 인간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交互作用(reciprocal action: interaction)을 하며, 자연물 전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추고 있으며,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생태학적 자연관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자연관은 인류가 '타인과 나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공동체의 한 구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2-A00089)

** 연세대학교 철학과

성원으로서 전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특성'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며, 여성의 이런 측면은 타인과 나와의 긴밀하고 유기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연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리학의 天人合一에 근거한 仁(the benevolence)의 관념은 훌륭한 조화의 철학이다.

이 연구에서 성리학의 자연관을 통하여 현재 여성학연구의 주류인 Eco-feminism과 연결하여 환경윤리와 여성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 任允摯堂(1721-1793)이라는 조선시대 여성성리학자의 철학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존재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성리학의 중요 쟁점과 문제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하고자 한다.

주제어 세계화, Ecofeminism, 천인합일, 오리엔탈리즘(동방주의), 임윤지당, 버지니아 울프

1. 머리말

세계는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개방의 영향으로 국가와 민족, 기업과 개인을 통하여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국경의 한계를 넘어 교류되고 있다. 특히 1995년에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공산품과 농산물 및 서비스 영역까지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흐름을 世界化(globalization)라고 한다. 한편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무한경쟁은 대부분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다. 산업화는 선진 공업국가를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이 추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선진공업국가는 첨단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와 산업화는 21세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화두(Key words)가 되었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화시대의 문화교류에서 동양문화를 이해하는 서구의 Orientalism(東方主義)을 반성하고 바람직한 문화이해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는 문화침략주의 혹은 문화우월주의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간·국가간·민족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가 특정국가의 대중문화에 각 국가나 민족의 고유문화가 소멸되거나 흡수되면 그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화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동서양의 사상을 여성주의(feminism)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새로운 환경윤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서구의 자유주의의 자연관에 대한 생태학(Ecology)과 생태여성주의의 비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자연관은 서구에서 산업화의 원동력이 된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학과 생태여성주의의 자연관은 성리학의 자연관과 많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은 서양의 생태환경주의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리학의 천인합일의 자연관이다. 여기서 필자는 천인합일의 자연관이 앞으로 환경윤리 정립의 이념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환경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성리학의 수양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환경윤리가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성리학의 수양론을 한국의 조선시대 여성 성리학자인 任允摯堂의 철학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철학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으며, 특히 환경파괴의 내면적 원인인 욕망의 극복을 위한 실천적이며 생태친화적 수양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서구논리의 관점에서 봉건적·전근대적 사상으로 이해하던 성리학이 사실

은 에코페미니즘의 환경친화와 평화정신을 일찍부터 구현하고 있었으며, 또한 현대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훌륭한 평화의 철학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서구 여성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한 Virginia Woolf의 사상과 임윤지당의 철학을 간단하게 비교함으로써 21세기 인류가 가져야 할 새로운 環境倫理(Environmental Ethics)의 가능성을 찾아 볼 것이다.

2. Orientalism과 문화교류의 正路

21세기 현재 인류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 인종차별주의, 인권탄압, 종교적 갈등으로 인하여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며 전쟁과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과 평화적 번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계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는 기본적 이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산업화의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고 전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인류의 보편적 이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가 없다. 그리고 동양은 동양의 문화적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세계화에 동참하고 나아가 세계화를 인류공동의 번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화 혹은 미국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필자는 이 서구중심의 세계화에는 Orientalism¹⁾에 근

1)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異國趣味)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리엔트, 즉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題材)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아주 막연한 것이었으나 18세기경부터 유럽 각지의 상류계급 사이에 유행하여 시누아즈리(chinoiserie:중국취미)·튀르크리(turquerie:터키취미) 등이라고 하여 미술이나 음악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동방과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작가

거한 문화이해와 서구중심의 합리주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동방주의(Orientalism)는 서구의 관점으로 동양의 문화와 사상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 판단의 기준이 서양의 합리主義다. 이에 필자는 올바른 세계화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Orientalism과 합리주의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동서양의 올바른 문화이해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Karl Marx(1818-1883)와 Max Weber(1864-1920)는 Orientalism이라는 용어의 형성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Marx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고, 타인에 의해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동양사람”을 ‘타인’은 “서양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동양인은 서양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동양인은 서양인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Weber는 과학과 예술, 관료집단, 정당, 자본주의, 사회주의, 합리주의 등 근대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서구에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참고) Weber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동방의 나라들을 여행하여 직접 그 풍토와 풍속에 접하여 그들의 표현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는 동시에 작가들의 직접 체험을 통하여 유럽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에 눈을 뜨게 한 것을 의미하며 오리엔탈리즘은 일부 낭만주의자들의 독점물은 아니었다. 문예상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용어에 내포된 ‘오리엔트’의 개념, 즉 고고학(考古學)이나 역사학상의 ‘오리엔트’와 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고 극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북부까지도 포함한 동방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서양이 자본주의와 근대자연과학을 발전시킴에 따라 Orient의 의미를 신비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Orientalism(東方主義)은 Occidentalism(서양주의)과 함께 동서양을 구분하는 대표적 용어다. 그러나 Orientalism에는 서구의 기독교 절대주의와 기독교를 믿는 백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방주의는 동양에 대한 서구의 우월감과 동양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Occidentalism에는 동양에 대한 서구의 역사적 승리감과 지배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Occidentalism에는 서양의 승리가 근대 문명과 현대 과학에 근거한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의 구분은 근대과학의 발전속도에 의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롯된 것이다.

19세기 이후의 세계사를 '근대화=서구화'라는 도식으로 이해한 것이며, 이것은 현재의 근대화를 시작한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서양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Edward W. Said는 Marx의 말을 그의 저서인 『*Orientalism*』(New York: Random House, 1978)의 제사(題詞, epigraph)로 삼았다. 그러나 Orientalism은 Said가 창안한 신조어도 아니다. Said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식민과 정복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그러한 서구인의 의식 속에 투사된 동양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편협한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려는 서양의 우월감에 근거하고 있는 사고체계를 지칭한다. "동양은 서양이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동양은 서양의 경험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사이드는 말한다. 그 동안 동양은 서양과 다른 동등한 또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다만 서양과 반대되는 이미지 또는 전근대적 표상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동양의 실상이 그동안 서구인들의 여행기나 상상으로 쓴 문헌에서 부정확하고 왜곡된 형태로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Orientalism의 바탕에는 서양의 합리주의가 깔려 있다.

서양의 합리주의는 현대 서양문명을 이룬 중심적 사유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매우 이상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인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M. Weber가 주장한 Idealtyp(理想型)이다. Idealtyp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이다. 이것은 이해대상의 문화를 본질적 가치와 보편적 기준에 따라 그 정체성과 특징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본질적 가치와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 곧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구적 기준으로 서구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서구의 합리성이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이 동양문화를 이해하

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양은 동양의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 가치와 보편적 기준은 문화와 철학이 생겨난 자연적·민족적·정치적·시대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서구의 합리성이 동양의 합리성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합리성에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Idealtyp과 같은 합리성은 실상은 즐기만 취하고 가치와 옳은 잘라버리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서구적 합리주의가 보편적 문화이해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理性에 대한 맹신은 서구적 관점이지 동양적 관점의 이해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양의 전통사상 가운데 하나인 성리학의 인간관을 비교해 보자. 이성이 물론 서구철학사의 훌륭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이성의 합리성에 근거하는 인간관으로는 유학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이해할 수 없다. 유학은 과거 약 2,000여 년간 동아시아의 대표적 사상이며, 정치·경제·문화의 이념적 토대였다. 유학에서 인간의 본질로 설명하는 仁·義·禮·智의 정신세계는 자연의 세계와 근원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원리개념이다. 여기서 이성능력과 같은 개념이 智와 義라고 할 수 있으며, 성리학에서 이성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한 부분일 뿐이다. 동아시아의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학의 자연관과 인간관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동아시아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학의 가치를 멸시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관점이거나 이러한 Orientalism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양의 문화가 그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Orientalism의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동양인 스스로 서구지향적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세계 인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세계화의 중심이 동서 어느 지역이나 국가 혹은 특정 인종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며, 사유에 있어서도 특정 철학

이나 문화 또는 종교가 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세계화시대의 문화교류에서 Orientalism과 같은 왜곡된 관점을 벗어나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객관적·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편적 인간평등주의이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 '인간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 '인간은 모두 善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유학의 가르침, 'Allah 앞에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보편적 인간평등주의를 인정한다면 문화의 평등주의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가 탄생한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민족적 특성이 다르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를 이해함에 그 문화가 탄생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어떤 특정한 문화를 이해하는 관념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가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각 문화주체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시각도 같은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혼성문화로서의 풍부함도 재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유문화와 혼성문화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고유문화는 等價性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후쿠다(福田)는 문화는 混成文化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大傳統(Great Tradition)과 小傳統(Little Tradition)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대전통은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보편성이 강한 문화이며, 소전통은 좁은 지역에 自生하는 고유한 문화다. 그런데 후쿠다는 모든 문화는 대전통과 소전통의 혼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²⁾ 여기서 소전통의 문화가 대전통의 문화에 흡수·통합되는 현상이 세계화 과

2) 福田 殖, 「21世紀의 儒學과 退溪學의 役割」, 『退溪學報』, 第一百輯〈特輯號〉, 退溪學研究院, 1998年 12月, 162쪽.

정의 문화교류에서 일어난다. 즉 각 국가와 민족의 고유문화와 사상이 축소 혹은 단일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문화와 혼성문화의 구별을 통하여 고유문화의 등가성이 유지된다면, 자기문화를 타문화의 시각에서 재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세계화의 조류를 강대국의 패권주의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인류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동양은 동양의 철학적 사유의 지평을 세계의 지평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양의 고유한 사상적 특징과 사유방식을 더 발전시켜야 하지만, 한편으로 세계화의 조류에 맞추어 서양의 철학적 사유와 만날 수 있는 논리와 철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구차원의 환경보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특히 현대의 환경파괴의 원인이 서구의 자유주의 자연관에 있다고 보는 서양의 생태학과 생태여성주의의 비판과 성리학의 자연관은 이를 위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3. 자유주의의 자연관에 대한 서구의 비판:

生態學과 생태여성주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환경보존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기존의 관념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류의 불행은 지구의 환경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늘의 인류번영을 이룬 서구문화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생산의 수단으로 삼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서구문화의 자연관은 자유주의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이 자유주의가 현대의 환경파괴의 중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 자유주의는 본래

17~18세기에 주로 유럽의 신흥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개성을 자각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사상이다.

먼저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오늘날 먼저 자유주의 자연관에 대한 비판을 Gus Dizerega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³⁾ 첫째,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중심주의로서 자연과 자연물을 단순히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만 생각한다. 둘째, 자유주의는 자연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하고, 자연을 조작·통제·지배함으로써 인류의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고 낙관하였다. 그 결과 환경파괴가 진행되었다. 셋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자연과 자연대상을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성장에 대한 절제도 없었고, 자연과의 공존도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유주의에 근본한 자본주의적 생산제도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대규모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한편 이런 비판이 자유주의의 경제체제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발 산업국가들에게는 하나의 '환경제국주의'로 인식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후발 산업국가는 자유주의를 경제발전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환경위기를 해결하려는 사유도 생겼는데, 그것이 곧 '신자유주의적 환경론'이다.⁴⁾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1930년대 독일의 W. 오이켄이 창립한 이론이

3) Gus Dizerega, "Social Ecology, Deep Ecology, and Liberalism," *Critical Review*, vol.6 (1992), 305-370쪽.

4) 신자유주의적 환경론은 "신자유주의적 환경운동"(neoliberal environmentalist movement)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환경운동의 중요내용은 Laurent Dobuzinskis, "Is Progressive Environmentalism An Oxymoron?", *Critical Review*, vol.6 (1992), 283-303쪽 참조.

며, 2차 대전 후 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한 경제사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가 구체적 경제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며,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Reaganomics에 의해 그 위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후에는 더욱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보수적 자유주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사적 근거와 중요 내용, 구체적 정책형태 등을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신자유주의도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상이며, 환경파괴의 원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위한 자유화, 탈규제화, 개방화 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일부 국가의 경제발전·물질적 풍요·기술혁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환경파괴·사회갈등 유발·빈부격차에 의한 범죄발생의 증가를 초래하는 폐해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생태학(Ecology)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학은 본래 1869년 E. H. Hekel에 의하여 만들어진 말로 '생물과 환경 및 함께 생활하는 생물과의 관계를 논하는 과학'이라는 뜻이다. 이 생태학은 현대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하고 환경파괴의 원인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관한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았다.⁵⁾ 그리고 생태학은 지구환경의 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방법에 따라 심층생태학(Deep Ecology), 사회생태학(Social Ecology), 생태사회학(ecological socialism), 생태마르크스주의(ecological marxism)로 구분된다.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은 급진적 환경운동으로서 지구의 환경위기는 서구문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본다. 즉 생태계의 위기는 서구문명의 근간이 되어온 인간중심적인 지배적 세계관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5) Barry Commoner, 『The Closing Circle : Nature, Man, Technology』(New York: Knopf, 1971) 41-42쪽 참조.

그러므로 Zimmermann은 인간이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질서가 생물중심적(biocentric) 평등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⁶⁾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현재 지구의 산업공해, 생물의 멸종, 핵의 위협을 벗어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동등한 생명적 가치를 누리고 자연의 재생산이라는 순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는 서구의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사유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생물중심적 사유가 근본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기능이 그야말로 존재론적 객관성을 가지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객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곧 인간중심에서 생물중심의 평등주의로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이다.

Zimmermann은 이러한 사유의 가능성을 “중심적 직관(the central intuition)”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중심적 직관’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절대적인 분리란 없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서양철학의 사유방식은 정신과 물질,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인간과 자연 등 이원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이원론의 구조에서 정신은 물질을,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유전통에 비하여 심층생태학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유를 부정한다. 심층생태학은 인간과 자연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자론적 사유에서 벗어나 우주를 구성하는 풍부한 내적 관계성을 중시하고, 인간이 이 모든 관계성의 중심에 있는 “중심점(node)”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이 중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이다. 심층생태학은 인간 개개인이 “성숙한 인간(a mature humanity)”이 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즉 전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자기이해가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말이다.

6) Michael E. Zimmermann, “Deep Ecology and Ecofeminism : Emering Dialogue”

그러나 심층생태학은 자연에 관한 서구의 사고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 오기는 하였지만 이원론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을 각각 독립된 주체로 이해하는 한 이원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층생태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롭게 나타난 것이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이다. 먼저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생태여성주의의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자. 첫째, 생태여성주의는 사상적으로 1960년대 자연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심층생태학(Deep Ecology)과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심층생태학자나 생태학적 여성해방론자들은 진보(progress)와 개발(development)에 책임이 있는 서구적 범주들이 변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와즈 드본느(Francoise d'Eau-bonne)로, 그는 1974년에 지구상의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줄 생태학적 혁명을 일으킬 여성의 잠재력을 기술하면서 새로 사용한 말이다.

둘째, 생태여성주의도 심층생태학과 같이 이원론적 사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식, 엄격한 자율성, 추상적 이성 등을 함께 비판한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는 심층생태학은 이러한 사고를 남성중심으로 定型化(standardization)하였기 때문에 家父長制(patriarchy)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Carolyn Merchant는 여성해방운동이 심층생태학과 결합되면서 환경·평화·여성·건강 등의 靈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서양근대화의 초기에 벌어졌던 ‘마녀사상’은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서 벌어진 여성탄압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⁷⁾

7) C.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Merchant는 여성해방론을 주장하는 관점에 따라 자유주의 여성해방론(liberal feminism), 환경개량주의(reform environmentalism), 급진적 여성해방론(radical feminism), 사회주의 여

셋째, 생태여성주의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을 하나로 보고, 생명의 가치, 평등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문명은 남성중심·서구중심·이성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생태의 위기는 이러한 사고로부터 진행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자연과 인간문명의 어울림과 균형을 통해 모든 생명체의 통합을 강조한다. 생각하면 인류사회의 남녀간의 심각한 불평등은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또 하나의 요소다.

필자는 생태여성주의가 등장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산업사회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과 IT산업이 주축인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종래 육체적 힘이 중시되던 남성 중심적 사회로부터 섬세함의 여성적 산업체계로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면서, 여성의 권리와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중심적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즉 종래에는 자연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보아 자본, 노동, 자연이라는 생산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재생산의 주체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2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었고, 재생산은 인간의 몫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이러한 재생산의 의미에 맞는 것은 여성이지 남성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성해방운동과 생태운동은 각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자연환경의 법칙과 맞지 않는 것임을 함께 자각한 것이다. 따라서 Ecofeminist들은 '인간중심주의의 자연관'에서 '평등주의 자연관'으로, '남성중심주의 자연관'에서 '여성중심의 자연관'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생태여성주의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환

성해방론(socialist feminism)으로 구분하였다.

경보호를 위한 전지구적 공동노력과 협력을 위해서는 동양의 문화적 전통에 담겨있는 자연친화적 자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성리학의 天人合一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생태철학으로서 성리학의 天人合一의 자연관

Ecofeminist인 Maria Mies는 지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포괄하는 ‘자존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를 통하여 끊임없는 자본축적을 위해 여성·자연·원주민·이민족과 다른 문화와 계급을 착취하고 식민화하는 체제를 바꾸기 위한 혁명을 일으키고, 지역적·민족적·전지구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한다.⁸⁾

필자는 여기서 ‘자존적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양은 극히 일부 OECD국가를 제외하고는 개발과 공업화가 한창 진행되는 중이며, 이 개발과 공업화는 사실 西歐가 그 모델이다. 따라서 동양도 서구가 겪은 환경과 파괴를 답습하고 있으며 뒤늦게 환경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동양의 고유한 자연관을 버리고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서구의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자연관을 따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성리학의 천인합일사상을 살펴봄으로써 동양적 자연관의 한 유형을 드러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앞서 살펴 본 바 서양의 생태학 특히 생태여성주의의 이념과도 잘 어울릴 것이다.

성리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일적 관계

8) Maria Mies & Vandana Shiva. Ecofeminism, 한국어판(창작과비평사, 2002) 序文.

로 이해한다. 그것이 천인합일사상이다. 이 천인합일사상은 生生的 자연관으로 서양의 순환적 자연관과는 다르다. 이러한 천인합의 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이 張載(1020-1077. 호, 橫渠)였다. 그는 인간에게 내재한 本性이 곧 “誠(완전한 도덕성과 지적능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天(자연)과 합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재는 “儒者는 明(자연과 사물의 理致에 밝음)으로 인하여 誠을 이루고 誠으로 인하여 明을 이룬다. 그러므로 천(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되는 학문을 이루면 가히 聖人이 될 수 있다.”⁹⁾라고 하였다. 여기서 誠은 ‘인간의 도리를 다함’을 의미하며, 明은 ‘사람과 자연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는 誠과 明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자연과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하다. 장재의 천인합일론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원리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자연을 인간과 같은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장재의 천인합일론은 인간이 인간으로써 실천해야 할 존재론적 덕목과 삶의 적극적 태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재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일관된 논리체계로 해명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근거를 찾고, 자연과의 合一과 완전한 調和를 추구하였다.

장재의 이러한 천인합일론을 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한 朱熹(1130-1200. 호 晦庵)는 “理一分殊”의 논리로 설명하였다. “『西銘』은 구절마다 ‘리일분수’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 『西銘』은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리일분수며, 하나의 구절도 리일분수다”¹⁰⁾라고 하여 伊川과 같이 장재의 『서명』을 ‘리일분수’의 결정체로 이해하였다.

이 리일분수의 명제는 성리학의 우주론과 人性論의 중심논리며, 세계의

9) 『正蒙』 「乾稱」; 儒者則因明致誠, 因誠致明, 故天人合一. 致學而可以成聖.

10) 『朱子語類』(臺灣 中華書局 1983) 卷98, 7冊 2522쪽 張子之書 一.

『西銘』要句句見理一而分殊. … 『西銘』統體是一個理一分殊, 一句是一個理一分殊.

統一성과 特殊性의 본질을 밝히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해명하는 논리이며, 또한 자연론과 가치론을 일관된 논리체계로 설명하는 명제이며, 나아가 인간의 최고의 도덕가치인 '仁'을 실현하는 방법론이다. 주희는 이러한 理一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근원적 동질성을 설명한다.

단지 인간의 性은 본래 不善함이 없다고 할 뿐이며, 그것을 평소 쓰임에 당연한 법칙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그것이 이른바 천리다. 사람이 만약 매사에 이것을 얻으면 곧 천리에 부합한다. 자연과 인간은 본래 단지 '하나의 리(一理)'이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하면 天(자연)이 무엇이 클 것이며, 인간이라고 무엇이 작겠는가?¹¹⁾

理 때문에 인간의 性은 불선함이 없으며, 그렇게 되는 원리가 곧 天理라는 것이다. 이 천리는 곧 우주의 법칙이다. 따라서 천리를 중심으로 보면 인간과 天은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천리에 따라 행동하면 도덕적으로 善을 이루게 된다. 주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天(자연)이 곧 인간이며, 인간이 곧 天이다. 인간이 처음 생겨남에 天에서 얻는다. 이미 이 인간이 생겨나면 천은 또한 인간 속에 있다."¹²⁾고 하여,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독립된 두 실체가 아니라 천과 인간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天人合一이라고 하였다.

천인합일론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계의 질서를 객관적 인간의 도덕원리로 환원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즉 자연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존재론과 인간의 가치론을 일치시켰다. 이로부터 神중심의 사유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11) 『朱子語類』 卷17 「大學四或問上」 (臺灣 中華書局 1983)

問: 只是言人之性本無不善, 而其日用之間莫不有當然之則. 則, 所謂天理也. 人若每事做得是, 則便合天理. 天人本只一理. 若理會得此意, 則天何嘗大, 人何嘗小也! (壯祖)

12) 『朱子語類』 卷17 「大學四或問上」 54; 天卽人, 人卽天. 人之始生, 得於天也; 旣生此人, 則天又在人矣.

의 우주론을 확립하였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우주론을 통하여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대하여 자연과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려 함과 동시에, 인간의 총체적 삶을 우주의 변화와 운행원리와 일치시켜 설명하려는 형이상학적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은 인간은 자연의 원리에 순응해야 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인간의 적극적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능동적 자각과 적극적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자연을 이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인간의 능동성과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自然中心主義만을 고집하는 것도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인간을 통해서 자연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부장제는 자연합일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학 혹은 성리학은 가장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사상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성리학의 특징적 가족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리학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남녀와 부부의 관계는 근원적으로 평등하다. 성리학의 고전인 『易傳』(宋, 程頤 著)에는 천지와 인간과 자연사물, 그리고 인간사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천지가 있는 뒤에 라야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뒤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는 뒤에 夫婦가 있으며, 부부가 있는 뒤에 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는 뒤에 君臣이 있고 군신이 있는 뒤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는 뒤에 禮義를 두는 바가 있다. 부부의 道는 오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³⁾

13) 程頤, 『易傳』, 序卦傳下.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夫婦之道不可以不久也.

여기서 天地와 만물, 남녀, 부부, 부자, 군신, 상하, 예의는 우주자연과 자연사물, 인간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성리학에서는 천인합일로 설명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끼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흔히 인간사회에는 다양한 상하관계와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생태여성주의가 특히 비판하는 것은 남녀사이 또는 부부사이의 불평등인 가부장제(patriarchy)이다. 이 가부장제는 남성중심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위 『易傳』의 내용을 보면 남녀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차등을 의미하는 상하관계는 계급을 이루는 군신관계가 성립된 뒤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陰과 陽의 조화로 설명되는 성리학의 자연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비록 과거 동양에 ‘陽이 귀하고 陰은 비천하다[陽尊陰卑]’는 관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여성억압적 윤리관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유학 혹은 성리학 본래의 사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인간관계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하의 차별개념이 없다는 성리학 본래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다면 오늘날의 남녀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원리이듯 남성과 여성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자연의 법칙을 해명함과 동시에 자연을 통하여 인간의 원리를 탐구하려고 하였다. 즉 서양은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서로 다르다고 보고 인간이 자연의 원리를 해명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였던 반면, 동양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써 완전하게 자연과 화합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리학의 천인합일론은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는 大同社會와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는 만물일체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宇宙觀이자 형이상학적 통찰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생태여성주의와 성리학의 자연관이 함께 만날 수 있는가이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개입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않으면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을 끼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환경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을 자연의 원리에 맞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욕망의 절제이다. 필자는 욕망의 절제를 위한 환경윤리로 성리학의 수양론에 주목한다.

5. 새로운 환경윤리를 위하여:

임윤지당의 성리학과 Virginia Woolf의 feminism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필자는 인간의 욕망의 절제와 정의로운 만족을 중시하는 성리학의 수양론은 Feminism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윤리의 정립을 위해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성리학의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한 二程형제와 朱熹, 한국의 李滉과 李珣 등 많은 성리학자들이 중시한 내용이며, 그 내용과 체계가 방대하고 정밀하다. 그러나 필자는 feminism의 관점에서 한국의 여성성리학자인 임윤지당의 수양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서양의 여성철학자라는 점에서 Virginia Woolf의 사상과 간단히 비교함으로써 21세기 인류가 나아가야 할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임윤지당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봉쇄되어 있는 신분제 사회에서 당시 성리학계의 최고지성에 이른 것은 동서양의 철학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필자는 먼저 임윤지당의 인간관을 feminism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天(자연)이란 무엇인가? 天의 형체는 높고 높아서 끝이 없음으로써 그 크음을 나타내고, 천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함이 끝이 없음으로써 그 仁을 드러낸다. 땅이란 무엇인가? 하늘과 짝이 되어 천지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천지의 中(The best principle)을 얻어서 천지의 사이에서 태어나, 만물 가운데 으뜸이며, 三才(천지인)의 하나가 된다. 천지는 지극히 큰 것인데, 사람은 지극히 미세한 체구로 그 사이에 살면서 삼재의 하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능히 천지의 법칙을 완전하게 이해하여 그 덕성에 합치하였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존재론은 일반 대부분의 성리학자들과 별로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적 창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神人이 아니라 自然人이다. 인간이 우주자연과 더불어 하나의 대등한 존재로 설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치를 그만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과 천지자연이 하나의 동일한 원리로 존재하며,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 윤리가치도 자연법칙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임윤지당은 천인합일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인간과 천·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仁은 성리학의 최고 개념으로 존재의 원리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자연의 원리를 가장 완전하게 부여받아서 태어났으므로 자연과도 완전한 일체가 되어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잘 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구체적 정신의 내용이 인·의·예·지의 사단이다.

『詩經』에 말하지 않았던가? ‘하늘이 백성을 낳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으니 (그것은) 백성의 밝은 도리며 훌륭한 덕이다’라고 하였다. 훌륭한 덕이란

14) 『允摯堂遺稿』上「理氣心性說」

夫天者何也? 形而巍巍以極其大, 心而生生以極其仁者也. 地者何也? 配乎天, 以成造化者也. 人者何也? 受天地之中, 以生乎兩間, 而冠萬物, 爲三才者也. 夫天地之至大也. 而人以藐然之身, 處於其間, 參爲三才, 何耶? 以其能體天地之道而與之合其德也.

바로 仁·義·禮·智다. '밝은 도리'라는 것은 고유한 것으로 마치 몸에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 善한 것을 태어나면서 갖추고 태어난 것이며 性의 근본이다. 惡이란 것은 형체가 생긴 이후에 있는 것이다.¹⁵⁾

여기서 하늘은 神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백성을 낳는다는 말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람이 생겨났고, 동시에 사물도 각각 그 생겨난 원리가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람이 되는 본질인 인·의·예·지가 있는데 그것은 선천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정신 세계를 설명하는 이 네 가지 항목은 이성의 인식능력을 정신의 본질로 생각하는 서구의 사유와는 분명히 다르다. 인·의·예·지 가운데 義와 智만 이성의 사유능력과 비슷하며 仁과 禮는 이성의 범주 밖에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합리성에 근거하는 인간관으로서는 성리학의 인간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의예지의 정신세계는 자연의 세계와 근원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원리이다.

이에 따라 임윤지당은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인·의·예·지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누구나 노력에 따라 최고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이성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성리학의 理想은 聖인이 되는 것이며,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氣의 담일한 본체를 부여받아 理의 純善과 함께 性善을 확보하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이것을 확충하여 성인이 될 수 있는가?

氣의 근본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할[湛一] 뿐이다. 湛一이란 天地의 浩然之氣(맑고 곧은 義氣)며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이다. 聖人에서부터 凡人에 이

15) 『允摯堂遺稿』上「理氣心性說」

詩不云乎?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懿德者, 仁義禮智是也; 而秉彝云者, 固有之若操執然. 是其善者, 與生俱生而性之本也; 惡者形而後有者也,

르기까지 이 湛一한 근본을 다 같이 얻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피차의 다름이 없다. …… 그러므로 ‘성인과 나는 같은 종류다’고 한다. 진실로 남이 한번 하면 나는 천 번을 하여 德이 氣를 이기게 되면 담일의 근본은 나에게 온전하게 회복되어 다름이 없게 된다.¹⁶⁾

사람이 기로써 형체를 이루며 사람의 근본은 곧 기의 湛一함에 근본한다. 그리고 이 담일은 곧 우주의 근본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성의 근원인 浩然之氣가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물론이며 범인도 이 기의 담일함을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凡人的 기질에는 淸濁과 厚薄이 있고 그에 따라 본래 부여받은 담일함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탁하고 雜駁(뒤섞이고 혼란함)함에 물들었다고 영원히 본래의 담일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양을 통하여 남보다 노력을 배가한다면 충분히 맑고 깨끗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윤지당은 수양을 통하여 성인이 되는 것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성리학의 철학적 이론들이 남녀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은연중 남성중심의 가치관으로 성리학을 이해하는 풍조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 聖인이 되는 데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윤지당의 사상은 페미니즘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이상을 추구한 성리학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 하늘이 백성을 생겨나게 함이 어찌 일찍이 仁이 아니었겠는가? 오직 그 마음이 形體(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 自暴自棄하여 말하기를, ‘나는 氣質이 아름답지 못하니 어찌 감히 聖賢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 아! 내 비록 婦人的 몸이기는 하지만, 받은 바의 性은 애초에 남녀의 차이가 없

16) 『允摯堂遺稿』上「理氣心性說」

氣之本湛一而已。湛一者，天地浩然之氣，彌六合者也。聖人至於塗人，未嘗不同得此湛一之本，則宜無彼此之殊，……故曰：聖人與我同類。苟能一人己千，德勝其氣，則湛一之本復全於我，而無不齊矣。

다. 비록 顏淵이 배운 바를 배울 수는 없지만, 성인을 양모하는 뜻은 매우 간절하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소견을 펼쳐 이를 서술하여 나의 뜻을 덧붙인다.¹⁷⁾

하늘이 백성을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유가의 대표적 개념인 仁이며, 인간은 하늘이 인간을 태어나게 한 仁의 精髓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도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에 매달리고 스스로를 낮추어 보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며, 그것은 禽獸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仁을 온전하게 갖춘 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임윤지당은 당당하게 유학의 성인인 顏淵을 배우고 성인이 되기를 염원하고 노력하노라고 선언하였다. 임윤지당의 포부는 단순한 지식이나 문예가 아니라, 인간의 心性을 최고로 수양하여 인욕을 절제하고 天理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이상인 聖人이 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여성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당당한 최고의 수준을 갖춘 성리학자이자 실천가로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여성철학자로서 임윤지당의 철학은 서구에서 여성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영국의 Adeline Virginia Woolf(1882-1941)의 사상과 비교되는 점이 많다.

Virginia Woolf의 여권주의는 兩性同體論(Androgyny)과 家父長制(Patriarchy)의 비판으로 요약된다. 양성동체론은 그녀가 소설 『A Room of One's Own』에서 제기한 것이다. 여기서 올프는 단순한 여권신장이나 정치적 동등권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양성동체론'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두 性(Gender)의 동등함이 아니라

17) 『允摯堂遺稿』上「克己復禮爲仁說」

嗚呼, 天之生民, 何嘗不仁? 惟其心爲形役, 安於暴棄, 而乃曰我氣質不美, 豈敢學聖賢哉? …… 嗟! 夫若此者, 蔽痼已甚, 不可以語仁, 眞夫子所謂末如之何者也. 噫! 我雖婦人, 而所受之性, 則初無男女之殊. 縱不能學顏淵之所學, 而其慕聖人志則切, 故略叙所見而述此, 以寓意焉.

한 사람의 정신 속에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고르게 발달시켜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자는 의미이다. 서양의 feminism이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울프의 양성동체론은 여권 주의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Woolf는 『A Room of One's Own』에서 당시 영국사회의 가부장제 문화를 비판하였다. 여기서 그녀는 남성지배의 의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육체와 여성의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미래사회에서의 여성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Woolf는 『A Room of One's Own』에서 “연 수입 500 파운드와 열쇠를 채울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있으면 여성도 훌륭한 문장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윤지당은 시대에 반항적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일상적 직분을 중시하였다. 그것에 충실한 것이 婦德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성의 보편적 심성 수련과 예의범절의 습득을 강조하였고, 학문과 문예에서 재능 있는 여성들을 존중하였다. 또 과거 역사적 인물 가운데 의리와 명분을 숭상하여 여성들의 의리와 용기있는 실천을 찬미하였다.

임윤지당은 Woolf보다 약 60년을 앞서 살았다. 임윤지당은 조선후기의 여성성리학자로서 당시 봉건사회의 지식인 계층에서 보면 매우 드문 철학자였다. 18세기 중반은 서구에서는 계몽주의가 유행하던 시기였으며, 조선후기사회는 봉건적 사회제도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열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실학이 대두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리학의 순수 형이상학적 문제를 더욱 본질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때였다. 임윤지당은 이러한 때 성리학의 순수형이상학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동시에 다양한 문체의 글을 통하여 자신의 철학적 소신과 역사관 사회정의감 등을 과감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임윤지당의

학문은 이전의 여성지식인이 대부분 詩나 그림, 文章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다.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이상학적 문제를 논의함에 당시 조선성리학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은 동서양의 철학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Woolf는 영국 런던에서 철학자이며 『영국 인명사전』의 편자인 L. Steven의 딸로서 귀족출신이며, 빅토리아 왕조의 최고지성들이 모인 환경 속에서 주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임윤지당도 당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당시 조선성리학계에서 최고의 학식을 갖춘 오빠 任聖周(1711-1788 호 鹿門)로부터 수학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하였다. 임윤지당은 결혼 5년만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었으며, Woolf는 소녀시절부터 앓은 신경증 때문에 1941년 3월 28일 우즈강(江)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임윤지당은 성리학적 윤리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여성이자 철학자로서 고독하지만 훌륭하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였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통치되던 전형적인 유교국가¹⁸⁾였다. 유교의 禮敎에서 보면 여성의 사회와 정치적 참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특히 당시 통치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여성 지식인들은 시와 그림 등 문학과 예술의 방면에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임윤지당은 여성도 엄밀한 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이고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음을 실천하였다.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인류의 공존을 위하여 동양과 서양의 만나

18) 여기서 유교(儒敎)라는 말을 필자는 윤리도덕과 일부 종교적 의미를 합친 개념으로 쓰며, 철학적 형이상학의 의미로 유학(儒學) 혹은 유가철학(儒家哲學)과 구분하고자 한다.

야 한다면, 그것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서로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동서를 아우르는 인류 보편적 이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동양의 장점으로서 세계화의 바른 길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절대 우위에 있는 이론이 성리학의 수양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수양론은 서양의 합리적 이성주의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리학의 수양론은 格物, 省察 등 도구이성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고급지성의 수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유학의 경우 인격이나 지식이나 도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지식과 도덕을 높이는 것 또는 지식과 도덕적 훈련을 통해서 인격을 높인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리학적 수양을 통하여 성리학의 자연관은 '생태친화적 인문주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6.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에코페미니즘은 서구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의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평등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원리로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여 도덕적 선악을 판단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성리학의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생태여성주의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 생태여성주의는 자연을 인간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交互作用을 하며, 자연물 전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추고 있으며,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생태학적 자연관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자연관은 인류가 '타인과 나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특성'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며, 여성의 이런 측면은 타인과 나와의 긴밀하고 유기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연결된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리학의 천인합일에 근거한 仁의 관념은 훌륭한 조화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간의 갈등을 화해의 장으로, 남북문제와 같은 산업 간의 불균형을 공정하고 상생적인 무역구조로, 종교 간의 갈등을 상호이해의 방향으로, 문화의 이질성을 인류문화유산의 풍요로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생태여성주의가 추구하는 이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순환생산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이다. 특히 성리학의 천인합일론에 나타난 상생의 자연관과 생명관은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인간이 경쟁적인 상극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의 평화와 조화의 관계로 본다.

그리고 필자는 단순한 이론적 해명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내면의 자각과 수양을 강조한 성리학의 실천적 수양론과 여성 철학자로서의 임윤지당의 철학도 오늘의 인류가 溫故知新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Arthur Ekkrich, *Man and Nature 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 Barry Commoner, *The Closing Circle : Nature, Man, Technology* (New York: Knopf, 1971)
- C.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Random House, 1978)
- Gus Dizerega, *Social Ecology, Deep Ecology, and Liberalism*, *Critical Review*, vol.6 (1992),
- Ian G. Barbour, *Technology, Environment, and Human Values*, "The American Experience"
-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 Michael E. Zimmermann, "Deep Ecology and Ecofeminism : Emering Dialogue"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1928). Harmondworth: Penguin, 1974
- _____, *To the Lighthouse*. Harmondworth: Penguin, 1964
- 김보희, *버지니아 울프 문학과 페미니즘*. Seoul, Korea, 현대미학사, 2003
- 福田殖, 「21世紀의 儒學과 退溪學의 役割」, 『退溪學報』, 第一百輯(特輯號), 退溪學研究院, 1998.12
- 張載, 『正蒙』
- 朱熹, 『朱子語類』(臺灣 中華書局 1983)
- 程頤, 『易傳』
- 『允摯堂遺稿』
- etc.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East & West Feminine Philosophy:
Virginia Woolf's Feminism and Chosun Imyunzidang's Philosophy
(Focusing on Globalization & Eco-feminism)

Son, Heung-Chul

Neo-Confucianism understands nature and man as ruled by one and the same principle and determines the moral good and evil on the basis of the law of nature. The contemporary Eco-Feminism have many features in common with such a doctrine. The term, Eco-Feminism, designates the theory which relates ecology to feminism. The Eco-Feminism does not understand nature from the man-centered viewpoint but considers man and nature in an reciprocal inter-relationship(交互作用). It is centered on the ecological world-view which professes that all things are related to one another in an intimate organic relationship and act as organisms. Such a world-view has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enabling man to treat another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and thus to receive his identity from the community in sacrificing oneself on behalf of its common good. This characteristic appears more strongly in women. It renders women more apt to have intimat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o pay due respect to them. In this respect, the doctrine of one inner principle of the heaven and human beings(天人合一) show that it is a doctrine of harmony.

In my lecture, I shall attempts to formulate some new views on the contemporary ecology and feminism. For that purpose, I shall introduce, as an example, the thought of the Neo-Confucian feminist, Yim Yoon Ji Dang (任允摯堂, 1721-1793), which teaches the harmony of nature and man and the equality of man and woman and I shall also discuss the universal human values contained in the basic theses of the Korean Neo-Confucianism.

Key Word

Globalization, Ecofeminism, orientalism, the heaven and human beings, Yim Yoonjidang, Verginia Woolf